



[Main] 글로벌 야간 브리핑: AI 훈풍과 금리 인상의 줄다리기

[Sub] 2026. 08. 27 시장 동향 및 매크로 지표 종합 분석

#반도체강세

#외인순매수

#FOMC매파

#한국은행금통위



국내 증시

KOSPI 6900선 회복

외국인·반도체 주도의
강한 상승세 현출.

단, 익일 한은 금리 인상
경계감으로 7,000선
돌파는 지연.



글로벌 증시

AI 낙관론 vs 금리 우려

엔비디아 실적 대기 속
다우(+2.01%) 및
유럽 증시 상승.

반면 나스닥(-0.08%)은
약보합 마감하며 뚜렷한
종목별 차별화 진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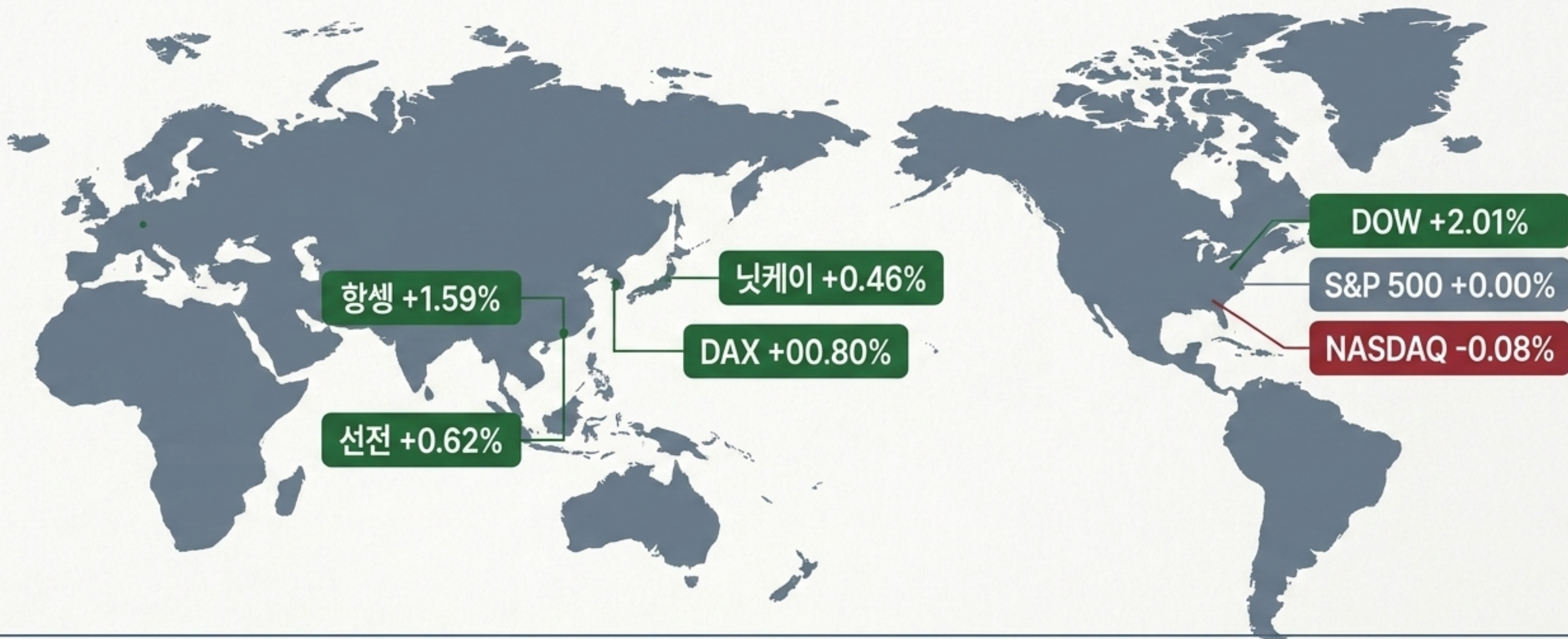


매크로 지표

인플레이션 경계감

미 국채 10년물 5bp
상승(4.09%)하며
FOMC 매파 기조 반영.

금·원화·비트코인
동반 강세의 복합 환경



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아시아와 유럽 증시를 견인하며 지수를 상승시켰으나, 미 본토는 인플레이션 및 주택시장 경계감에 발목이 잡히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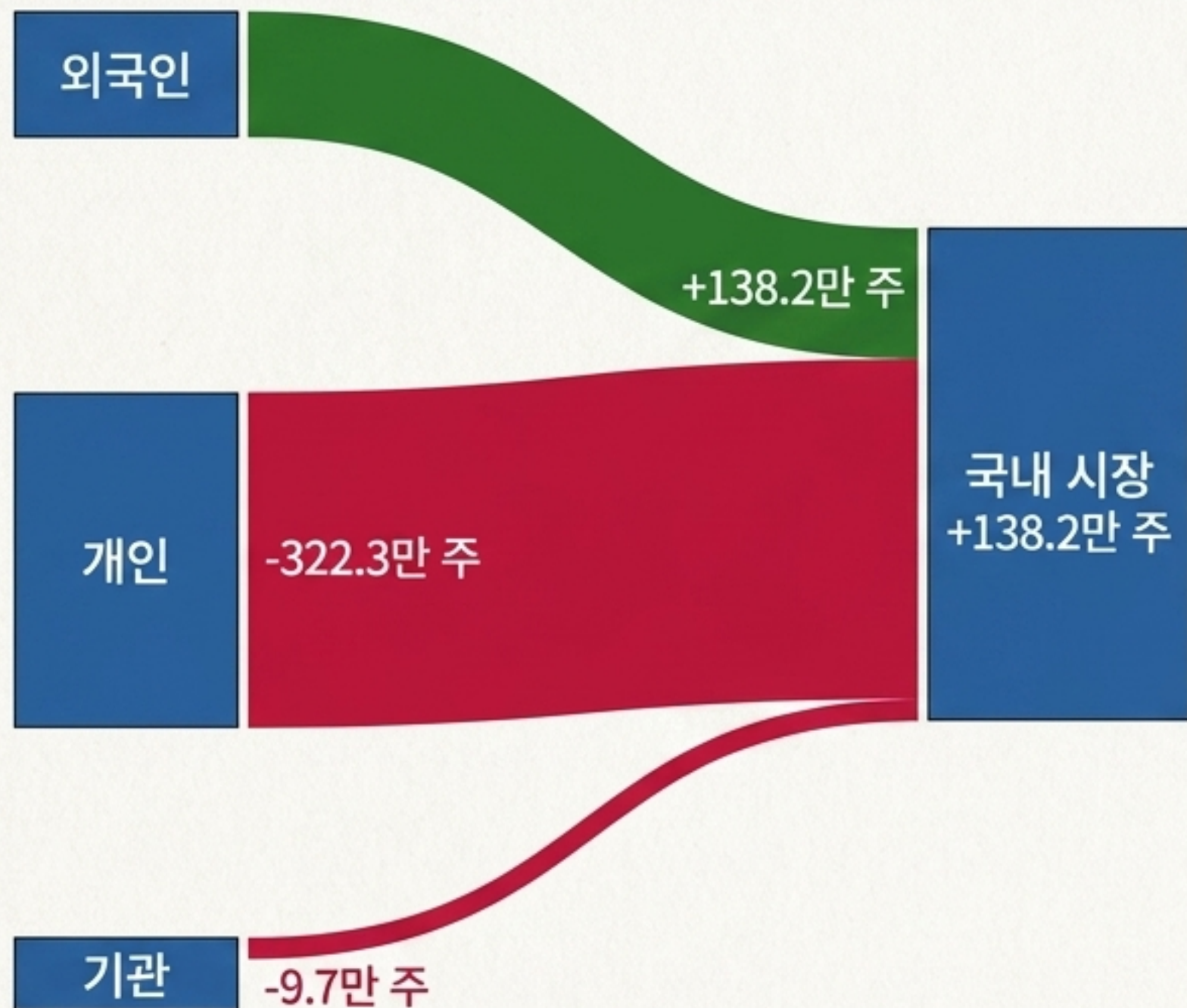
KOSP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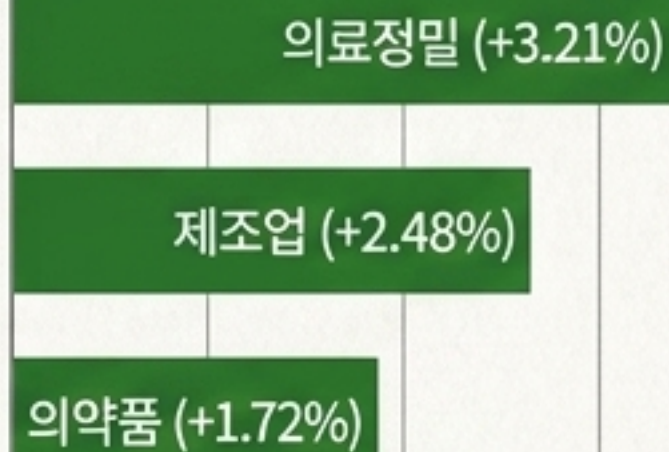
KOSDAQ



엔비디아 발 훈풍이 전력기기·반도체 강세를 이끌며 금리 인상 충격을 흡수했습니다.
1.5%대 급등을 시현했으나, 내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통위 경계감이
7,000선 돌파의 물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.



상위 주도 섹터



하위 소외 섹터



철저한 외국인 주도의 장세. 유틸리티와 음식료 등 방어주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기술·제조·의료 등 성장주로 강하게 유입되는 '리스크 온(Risk-on)' 자금 이동이 관찰됩니다.

삼성전자
1555.1조
+1.72%

SK하이닉스
1263.8조
+2.49%

삼성SDI
45.9조
+10.2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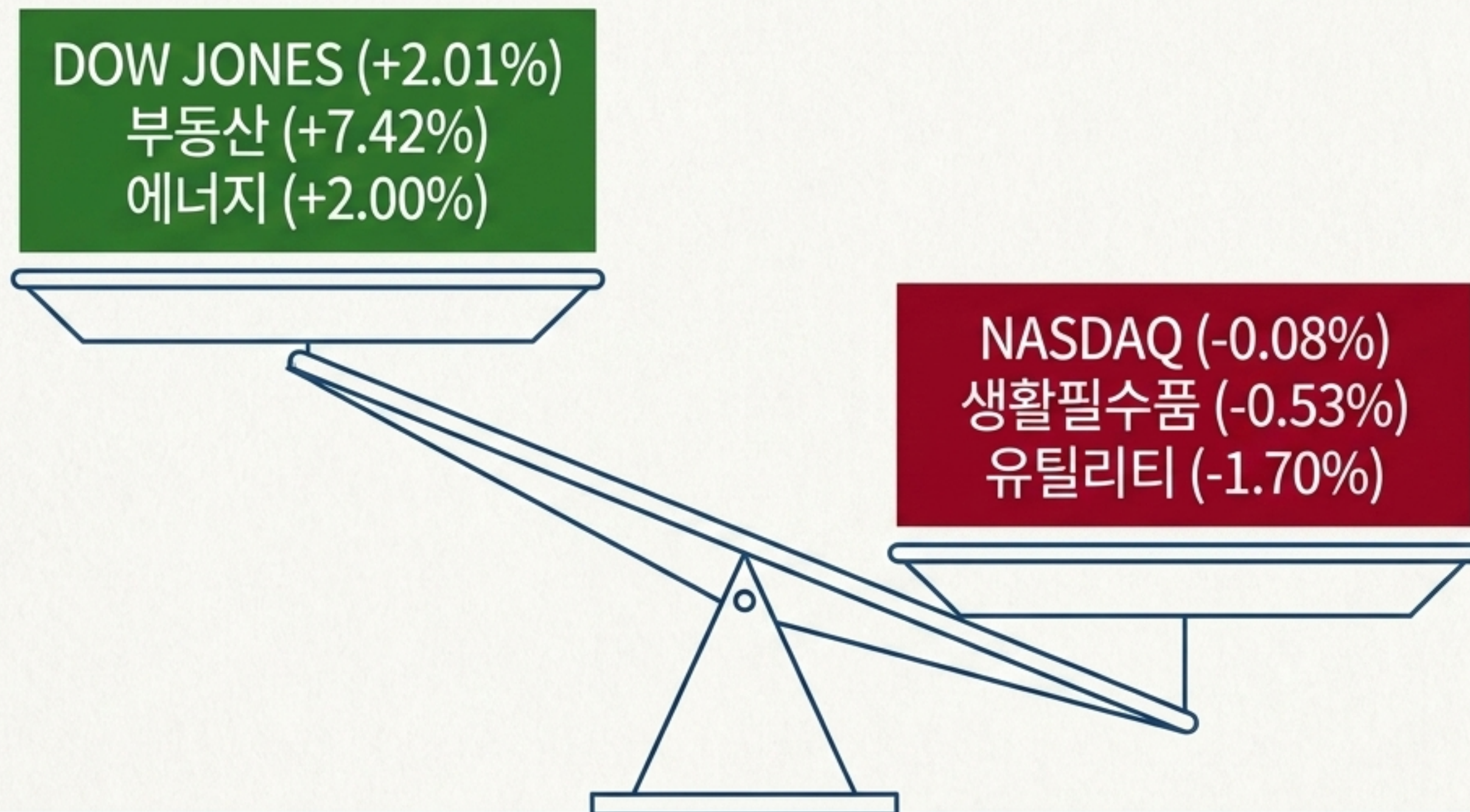
LG에너지솔루션
86.7조
+5.56%

LG화학
19.4조
+4.17%

현대차
81.5조
-2.45%

기아
49.2조
-4.03%

동반 상승장이 아닙니다. 배터리·화학 밸류체인과 반도체 대장주의 폭발적 랠리가
지수를 하드캐리한 반면, 완성차 섹터는 깊은 부진에 빠지는 등 종목별
극단적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.



미국 증시는 완벽한 ‘차별화의 장’입니다. 엔비디아가 정규장 전 7% 급등하며 분위기를 띄우며 띄웠음에도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밀렸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금리 민감도에 따라 자산 배분(Rotation)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

채권

미 국채 10Y 4.09% (+5bp) 

→ FOMC 매파 기조 반영

외환

원/달러 1,381.12원 (-5.30원) / 

달러인덱스 0.5

→ 유로 강세 및 원화 강세

원자재

WTI 원유 \$82.43 (+\$2.62) 

→ OPEC 감산 연장 기대감 재부각

대체자산

금(XAU) \$103,000 (+\$18) /

비트코인 \$103,000 (+\$1,240) 

→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랠리 기현상

국채 금리 상승(위험 회피)과 비트코인/원유 상승(위험 선호)이
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매크로 환경입니다.



상승 동력 (Micro Momentum)

- 엔비디아 실적 신기록 전망
- 광통신·AI 생태계 낙관론 재확산
- 글로벌 자본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

하방 압력 (Macro Gravity)

- FOMC 매파 기조 고착화
-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
- 인플레이션 및 주택시장 침체 우려

현재 글로벌 자본 시장은 AI 생태계가 창출하는 거대한 '미시적 실적 기대감'과,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'거시적 긴축 현실'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8/28 (수) 10:00 KST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
(기준금리 결정) ★★★

8/27

8/28

8/29

9/3

오늘 코스피가 7,000선 돌파에 실패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.
내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금리 경로(Forward Guidance) 발표 내용이
단기 국내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령이 될 것입니다.

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시간

AI 주도권은 여전히 강력하지만, 금리 리스크라는 '거시적 중력'이
시장의 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.

맹목적인 방향성 베팅을 멈추고, AI 생태계 내 분산 투자와
철저한 매크로 지표 확인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.